



돼지 기계등급판정 시범사업 '민속LPC' 권혁수 대표

고객홍보팀

지난해 돼지도축 기계등급기기를 민속LPC에 설치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9개월간 정육률을 조사해 축평원에서 한국형 산식을 개발하고, 종합전산망을 연계시키는 판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등급판정 정밀화로 판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돼지 기계등급판정 사업이 객관성과 효율성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와 이번 인터뷰는 돼지 기계등급판정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민속LPC 권혁수 대표를 만나 시범사업 현황을 알아보았다.

경북 군위군에 위치한 민속LPC는 초행길인데도 한눈에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도축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산뜻하고 깔끔한 건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요즘 구제역 이파로 위생이 철저한 시기라 입구에서부터 철저하게 차량 방역기인 소독터널로 차량을 소독하였다. 도축장임에도 불구하고 도축장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 도축은 안 하고 가공장만 운영하나 착각할 정도로 청결하였다.

한우계열화 사업 성공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종돈-사양-도축-가공-유통의 양돈계열화 사업을

순차적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 도축장이 굉장히 청결하고 위생적입니다. 민속LPC 사업장 소개와 대표님의 경영전략에 대해 들려주세요.

권 권혁수 대표(이하 권) 1990년대 중반 도축장 현대화 추진사업으로 경상북도에 설립된 도축 가공공장으로, 소 100두, 돼지 1,500두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의 작업장입니다. “직원이 주인인 회사를 만들자”는 경영목표로 2001년도부터 현재 17년째 운영 중입니다. 국내 많은 신업과 업종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참 힘든 업종에 종사 하고 있는 직원들이 민속LPC 민속한우를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축 민속LPC는 자동화된 현대식 작업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청결과 위생관리에 철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HACCP 우수 도축장으로도 선정되었는데요, HACCP 우수 도축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 많은 분이 저희 공장을 방문해서 물어보시는 말씀이 공장관리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HACCP 관리(공장관리)의 비법은 “기본에 충실히 하는 것” 입니다. 공장 내부에서 비용절감을 이유로 직원을 용역형태로 채용하고 있지만 저희는 전 직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 대한 관심과 애사심이 남다른데다, HACCP 관리의 비결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저희는 (월 2회) 토요일을 공장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병상시 기본업무로 인하여 미뤄왔던 기계점검, 시설물 개보수, 살균소독, 정리정돈, 외곽청소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대부분이 그리하듯이 HACCP 점검은 농식품부 외에도 거래납품처의 정기 점검(Audit)을 수시로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점검이 점검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얼마나 회사가 의지를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 부문에서 타사보다 저와 직원들의 개선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축 2016년 거점도축장으로 선정되었는데요, 거점도축장은 신청절차나 선정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점도축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권 거점도축장은 전국 도축장 가운데 불량과 자본, 위생과 경영의지 등이 우수한 도축장을 선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거점도축장을 중심으로 국내 축산업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합니다. 2015년 거점도축장 심사를 통과하여 2016년 1월 당사가 선정된 것도 이러한 거점도축장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당사를 선정한 것으로 압니다. 국내 유일의 민간 한우 패커로 성장한 민속한우 민속LPC는 지속적인 투자와 사업 확대를 통해 축산발전의 선도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한우계열화 사업 성공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양돈계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 원료돈의 사료 통일을 시작으로 종돈-사양-도축-가공-유통의 양돈계열화 사업을 순차적으로 완성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낙후된 우리나라 부산물 유통방법도 선진 유통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산물 열처리기계 도입과 부산물 가공공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축폐기물의 처리비용 증가도 국내 도축장이 해결해야 할 공동의 숙제입니다. 당사는 혈액자원화, 도축폐기물 저감 및 자원화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여 선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이빈 인터뷰의 주제이기도 하고 2016년 3월부터 축평원에서 민속LPC와 돼지도체 기계등급판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 측정값의 7개 부위 정육량, 삼겹살내 지방량, 전체 정육률 이미지 사진 등이 측정됩니다. 앞으로 기계 측정값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권 2016년 당사는 돼지도체 기계판정 시범사업에 선정되고 장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돼지도체 기계판정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자태그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설치 업체와 보완 중이며 조만간 완료할 것입니다. 아직 실제 사용보다는 측정값의 검증작업을 축평원과 함께 진행 중이며, 당사 또한 상업적으로 이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육량, 삼겹 지방량 등의 기계측정치와 실제 값에 대한 검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농가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원료인 생산을 위한 자료, 원료인 구매 시 우수농가 평가 자료, 향후 정육 측정값으로 원료돈 징산(당사는 탕박징산을 시행 중이며 9월 등급제 징산으로 변경예정임), 측정값을 활용하여 돼지고기 품질선별(예 : 삼겹 지방량 측정값으로 제품 구분생산), 사료나 종돈 사업자 등의 시험사육 측정기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권혁수 대표는 국내 축산업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도록 제도의 기초와 기본 틀을 완성한 곳이 축산물품질평가원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무궁한 발전과 성장을 기원한다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

